



메디체크 건강소식,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는 매일 발행하는 사보 '메디체크 건강소식'이 대한민국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회장상을 수상했다.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비즈니스 저널리즘 전 분야의 질적 향상과 관련 산업의 발전 공로지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 11월 30일 개최됐다.

월간 '메디체크 건강소식'은 국민에게 근거중심의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32만여 부를 제작해 지역 주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각계각층에 배부하고 있다.

건강소식에는 사회적 건강이슈를 비롯한 만성질환, 건강 생활습관 등의 다양한 건강 정보 외에도 여행 요리분야 등 교양 칼럼이 담겨있으며, 웹진(http://khpwebzine.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김인원 건강관리 회장은 "메디체크 건강소식을 통해 누구나 올바른 건강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건강정보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기량 맘껏 · 친목 도모

서동 · 선화배 배드민턴대회 성료

익산시배드민턴협회는 지난 3~4일 익산시 신동 김동문 배드민턴체육관에서 2022년 서동·선화배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백상용 익산시배드민턴협회 회장을 비롯해 한병도 김수홍 국회의원, 윤영숙·한정수 전북도의원,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 박중대·한봉연·김진규·박철언 익산시의회 시의원 양승용 익산시체육회 부회장 익산시배드민턴협회협회장들 및 170팀 선수들과 관중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대회가 치러졌다.

허양욱 익산시배드민턴협회 수석부회장이 대회개회식 선언을 한 후 대회행사가 시작되었다.

우선 백상용 익산시배드민턴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 배드민턴협회는 타시군에 비해 동호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왔으며 힘든과정에서도 여러대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얼마남지 않은 2022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 대회에 마음껏 즐기면서 마음껏 달고 달고 기량을 발휘해 뜻한 성공적인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회를 개최하는 데 많은 자문과 뒷받침을 해준 익산시배드민턴협회 자문위원 겸 전북도의원인 윤영숙 의원에게 고마움을 한 번 더 표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재훈기자



이어 정현을 익산시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들이 시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며 못처럼 오늘 대회에서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라며 서로 친목을 다지면서 뜻 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회에 사용될 우승상품이나 상품 및 경품 행사품 등은 현재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재배농가를 위해서 20kg10kg 용 쌀을 구매준비했고 그의 육류 및 라면, 휴지 등을 준비해 선수들과 관중들에게 증정하면서 많은 호응과 찬사를 받고 있다



서정일 과장, '함께하는 농협인상' 수상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하는 '함께하는 농협인상'에 전북광역연합사업단 서정일 과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정일 과장은 지난 2018년 전북농협 부임 이후 연합판매, 농산물수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연합사업 참여비율 전국 1위 달성, 예담채 브랜드 육성·홍보로 6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 전라북도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직접 수행으로 전북 농산물 판로개척에 기여를 인정받아 '함께하는 농협인상'을 5월 수상했다.

서정일 과장은 "그간의 노력을 보상으로 받는 것 같아 매우 기쁘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전라북도 농산물의 내수판매 및 수출을 확대해 농업인의 실익증진에 더욱 더 경주하라는 체적이라고도 생각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바이옌진흥원, '성범죄없는 사회 만들기' 캠페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는 직원들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의식을 강화하고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캠페인을 5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직장내 성희롱 유형 성희롱 발생 시 대처방안, 신고 및 상담방법 등을 안내하고 자체 제작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은미 원장은 "앞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임직원의 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건강증진 조직문화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진흥원에서는 올해 조직의 성평등 문화 정책을 강화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자 원장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간부급 특별교육을 앞서 별도로 실시했다.

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개정하는 등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김영태 기자

김치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도입 등 노고 인정

익산시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

익산시청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이 국가 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노고를 인정받아 '지방행정달인'으로 선정됐다.

박갑수 담당관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지방공무원을 달인으로 선발하는 '제12회 지방행정의 달인대회'에서 최종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박갑수 담당관은 2008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유치한 주역으로 농식품부 파견기간을 포함해 총 13년간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담 부서에 근무 중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의 '산 역사'로서 정부와 유관기관의 협력을 도모하며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 및 입주기업 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은 것이다.

특히 박 담당관은 과거에 외국산 김치가 한국산으로 둔갑 판매하여 골머리를 앓던 국내 굴지의 김치업체인 P사를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유치하고자, 농식품부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김치 국가명 지리적표시제'를 골자로 한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 결과 영커기업인 P사를 유치하는 쾌거를 달성했고 현재까지 벤처 기업 포함 124개 기업을 연달아 유치해 전라북도 투자유치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식품클러스터 단지 조성 초기에 왕궁면 주민들의 토지가 산업단지와 진입도로 공사를 시행하는 주체가 달라서 바로 옆에 있는 토지라도 이주대책이 차이가 발생해 국토부와 행안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결국 박 담당관은 관련부처인 국토부를 오랜 설득 끝에 토지보상법 관련 조항이 신설됐고 토지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산업단지 조성이 가속화됐다.

이 밖에도 기업지원시설 마련에 장애물로 작용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꾸준히 건의하여 총 12개의 기업지원시설을 구축하는 등 탁월한 아이디어와 노련한 행정력을 발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공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도, 2020년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상 및 장려상을 받기도 했다.

박갑수 담당관은 "어렵고 막대한 순간이 많았는데, 기업들이 익산시 덕분에 식품클러스터에 오길 잘했다고 할 때 가장 보람있다"면서 "남은 과제인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농협은행 혁신도시지점-LX, 사랑의 쌀 나눔

NH농협은행 전북혁신도시지점(지점장 윤연수, 한국국토정보공사LX 공사, 사장 김정렬)는 전주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쌀 1,600kg을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에 5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두 기관이 함께 쌀 1,600kg을 모아 사회복지법인에 전달함으로써 쌀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NH농협은행 전북혁신도시지점장,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영지원실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병원,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1등급'

전북대학교병원(이 제7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종합점수 99.0(전체 평균 84.5)의 높은 점수인 1등급을 획득했다.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는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전국 95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을 한 환자를 조사했다.

이번 평가는 '혈액투석 적절도 환과관리, 빈혈관리' 등 진료의 과정 및 결과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특히 전북대병원은 '혈액투석 적정도 검사 실시주기 충족률 동종백류 합작증 모니터링 충족률 정기검사 실시주기 충족률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 칼륨과 인 충족률 등에도 만점을 받았다.

유희철 병원장은 "혈액투석 환자들의 치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 최신 장비와 쾌적한 투석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환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농촌지도자 진안연합회, 고구마 기부

한국농촌지도자 진안연합회(회장 박순서)는 5일 공동과제포에서 제배한 고구마 5kg 500박스를 진안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6개의 장애인단체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진중성 군수 박순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6개 장애인 단체장이 함께했다.

이번 기부는 진안군 내 신소득원 발굴을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종품종 품종의 지역 적응성과 농가소득 보급을 위해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재배·수확한 결과로 더욱 의미가 있었다. /진안=유태만 기자

황혜숙 정읍시의회 부의장, 테두리회 감사패

정읍시의회 황혜숙 부의장이 지난 4일 정읍시 발전과 테두리회에 기여한 공로로 테두리회(회장 김대오)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테두리회는 지역의 대표적 민간단체로 농·농수목 등 지역사회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황혜숙 부의장은 "이날 최은식 공단 이사장 문홍성 감사장 우범기 전주시장 황경주 지부장 등 내외빈과 100여 명의 객의의 축하 속에서 법무보호대상자 6쌍의 신랑신부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합동결혼식에 앞서 열리는 2022년 법무보호복지대회는 한 해 동안 법무보호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유공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 시상 예정으로 대통령 표창 1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표창 10명, 전주지방검찰청 표창 7명, 전북도지사 표창 6명, 전주시장 표창 5명 등 총 29명이 수상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오늘 법무보호 복지대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전주그랜드호텔에서 2022년 법무보호복지대회를 6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최은식 공단 이사장 문홍성 감사장 우범기 전주시장 황경주 지부장 등 내외빈과 100여 명의 객의의 축하 속에서 법무보호대상자 6쌍의 신랑신부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합동결혼식에 앞서 열리는 2022년 법무보호복지대회는 한 해 동안 법무보호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유공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 시상 예정으로 대통령 표창 1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표창 10명, 전주지방검찰청 표창 7명, 전북도지사 표창 6명, 전주시장 표창 5명 등 총 29명이 수상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덕진소방서, 겨울철 한랭 질환 주의 당부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본격적인 겨울 한파가 찾아오며 한랭 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5일 당부했다.

한랭 질환이란 저온의 날씨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팔다리가 얼얼 등이 추위에 직접 노출되어 피부에 생기는 질환과 체온이 떨어져 생기는 전신 질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한랭 질환은 발생 초기 대처가 미흡할 경우 저체온증, 동상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고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법 숙지와 적절한 조치가 중요하다.

주요 한랭 질환으로는 10℃ 이하의 물에 손이나 발이 장시간 노출돼 발생하는 침수병, 침적병과 내부 장기나 근육에서의 체온이 35℃ 미만으로 떨어지는 생명을 위협하는 저체온증 강한 한파에 노출돼 피부 및 피하조직이 얼어붙은 상태인 동상, 저온 다습한 상태에서 추위에 지속적으로 노출 시 혈관이 손상되어 염증이 생기는 동창 등이 있다.

한랭질환 예방 수칙으로는 실내에서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외출 전에는 체온유지를 미리 확인해 한파의 날씨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또 부득이 외출 시에는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을 꼭 착용해야 한다 /김영태 기자

덕진소방서, '사우나 등서 비상탈출용 가운 비치'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사우나·목욕탕 등에서의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비상탈출용 가운 비치할 것을 5일 당부했다.

'비상용 목욕가운'은 사우나·목욕탕 등에서 화재가 발생 시 신속하게 착용하고 대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비상용 물품이다.

지난 2017년 12월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의 2층 여성 사우나와 2019년도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 여성 사우나에서 유독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때 이용객들이 옷을 챙겨 입다가 대피 직기를 놓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비상탈출용 가운만 착용하고 대피하는 경우 대피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며 이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와 피난 중심의 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탈출용 가운 비치의 독려에 나섰다.

강남십 방호구조과장은 "화재 발생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피이며 '사우나, 목욕탕, 찜질방' 등의 입구에 비상 탈출용 목욕가운을 비치해 비상사태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알림

▲김만기 신간 '함께가는 동진강 출판기념회' 일시: 10월(토) 오전 10시 30분, 장소: 정읍시 칠보면 칠보초등학교 강당, 행사주관: 전북리더협연수원·한국소피치용변협회 전북본부, 출판사: 생각나눔, 문의: 010-7304-5665(김양숙), 010-8814-6672, 063-285-6676(사무국).